

청 원 요 지 서

접수번호	28	접수년월일	2007. 6. 25.
청 원 인	강경노·김시현·이병호·김주용 외 5,397인		
소개의원	윤 기 성 의원(한나라당, 중랑구 제1선거구, 교통위원회)		
건 명	경전철 면목선(D2 노선)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		
소 관 위 원 회	교통위원회		

요 지

- “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(안)”중 신교통 수단인 경전철 (청량리-사가정역)을 도입키로 발표한 바 있으나, 신내동으로 노선을 연장하면서 홍보부족, 형식적인 주민공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노선인 사가정역을 배제하고 면목역을 경유하는 연장노선을 반대하며,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(면목선만)를 요청함
- 청량리-사가정역 간 노선이 신내동까지 연장되면서 기존노선인 사가정역을 배제하고 면목역을 경유한 배경.
  -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하여 연구 검토하고 시민공청회에서 배포 발표한 자료중 동북D-4(사가정역)에 대하여 환승객수를 실제(48,410명)보다 20,897명이 적은 27,513명으로 줄여서 검토한 경위.
  - D-1 노선부터 D-5까지 5개 노선중 4개 노선은 모두 사가정역을 경유하고 있는데도 유독 면목역을 경유하는 D-2 노선을 주장하는 합당한 이유와 서일대학교 중·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면목8동을 외면하여 책정된 노선의 합당성 결여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